

사회



25일 2명의 학생이 신종플루 확진 환자로 판명돼 임시휴업에 들어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구청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마스크·손 세정제 '불티'

신종플루 특수...약국·마트 판매 50% 늘어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신종 플루가 점차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마스크와 세정제 등이 날개돋힌 듯 팔리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감염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탓에 이달 초만 하더라도 마스크 등을 찾는 이들이 거의 없었으나 지난 15일 국내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일부 약국에서는 예방 물품이 품절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25일 대형 마트와 약국 등에 따르면 마스크 등에 대한 판매가 지난 해에 비해 5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동구 대인동 백제약국은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최근 수일 사이에 모두 팔려 새로 주문을 했으나, 납품전문업체가 약국들

로부터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한 탓에 아직 원하는 물량을 받지 못한 상태다. 광주신세계 이마트의 경우 15~24일 열흘간 마스크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가량 늘었고 손세정제는 10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 월드클럽 등도 지난해에 비해 마스크나 세정제 등이 30~40% 정도 늘었다. 특히 마트나 약국에서는 2겹 구조로 된 1천원 짜리 보다 4겹 구조로 된 2천원 짜리 마스크가 더 많이 팔려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대형 마트와 약국 등은 감염 예방 물품 확보와 함께 해당 코너도 확장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신종플루 확진 환자 상당수가 10대 중·고생

학교·학부모 '플루 노이로제'

광주·전남 중·고 11개교 13명 확진 판명

광주·전남지역의 신종플루 확진 환자 중 상당수가 10대 중·고등학생으로 알려지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이 개학부터 '플루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 방학 기간 해외연수나 국내 수련회 등을 다녀온 학생들뿐 아니라 외부 활동이 없었던 학생들까지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학부모들은 자녀가 기침이나 발열 증세를 보일 경우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이 아닌지 불안해하며 보건소나 병원을 찾고 있다. 학교 측도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발열 증세를 보이는 학생에게는 일단 병원 치료를 권유하는 등 집단 감염에 대비하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25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신종플루 확진환자는 광주 13명, 전남 77명 등 90명이며, 판정 없이 의심증세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섭취한 환자가 39명이나 돼 이 지역 신종플루 환자는 이미 100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13명의 광주 확진 환자 중 10대는 8명, 77

명의 전남 확진 환자 중 10대 및 유아는 21명으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보건당국은 학생들의 활동성이 왕성한데다, 방학 중 국내·외에서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등 신종플루 감염자와의 노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 6개교 8명, 전남 5개교 5명 등 모두 11개 학교 13명의 학생들이 확진 환자로 밝혀지면서 학교에서의 개학 후 집단 감염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중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 최모(45)씨는 "친구 집에 갔다온 아들이 갑자기 감기 증세를 보여 보건소에 문의했다"며 "다행히 해열제를 먹고 열이 내려 안심했지만,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광주 한 중학교가 신종플루로 인해 이날 첫 휴업에 들어가면서 다른 학교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외국

이나 집단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 중 발열이나 기침증세에 있는 학생들에게 검사나 병원 치료를 권유하고 있으나 정확한 파악하기 어렵다. 일반학생들끼리 감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은 일단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학생 주의사항 등을 각급 학교에 보내 위험국가 방문 학생은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입국일로부터 7일이 넘지 않으면 등교 중단 등 학교 당국의 안내조치에 따르도록 했다. 광주시 서구보건소 감염관리 소장은 "신종플루 감염 위험이 날로 높아지면서 방문이나 문외전화가 매일 50~60건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외국을 다녀온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모두 단순감기였으며, 신종플루는 37.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고 해열제를 복용해도 고열이 여전한 경우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부터 수능 원서접수

내달 10일까지 12일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12일 실시되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 원서를 26일부터 전국 79개 시험지구 교육청 및 고교에서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2일(토요일·공휴일 제외) 간으로 지난해보다 일주일 가량 앞당겨졌으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졸업 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며,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 고

교 소재지가 다른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원서를 내도 된다. 응시 원서를 낼 때는 여권용 규격(가로 3.5x세로 4.5cm) 사진 2매와 소정의 응시 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선택 영역 및 과목은 원서 접수증을 발급받은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수능 성적은 12월9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원서 접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나 수능운영부(전화 02-3704-3615,3675,3676), 해당 시험지구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연행뉴스

오늘 날씨

“한낮 더워요” 저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겠으며 오후에는 차차 흐려지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Seoul, Gwangju, and Jeonnam.

Table with tide and wind forecasts for the sea and inland areas.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he week of August 27th to September 1st.



5·18유공자 등 2명 전남대 명예졸업장

전남대는 26일 2008학년도 후기 대학 학위수여식을 각 단과대학별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박사 121명, 석사 369명, 학사 1천148명 등 총 1천638명이 학위를 받는다. 특히 28년 만에 5·18유공자로 인정

받은 고(故) 박문규씨가 명예졸업장을 받는다. 또 1980년 3월 전남대 공대에 입학했다가 5·18 광주민중항쟁에 참여해 같은 해 8월 6일 사망한 고 방인호씨에게도 명예졸업장이 수여된다. 한편 전남대는 2005년부터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학위수여식에서 탈피해 교수와 학생들이 석별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단과대학별로 행사를 치르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Kim Young' university entrance preparation center, featuring contact info and success statistic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에셋코리아' (Asset Korea) with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in various district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수완지구' (Suwanji) located near Lotte Mart, featuring a list of properti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